

스토리 기획서

메인 스토리

태초의 선과 악의 경계가 모호한시절 혼돈의 시대에서 선과 악의 존재들이 탄생하였습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던 공허를 부유하는 혼돈이라는 아득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초부터 존재했고 상상할 수 없는 세월동안 반복적인 행동을 하며 존재하여 왔습니다. 직접 세상을 만들고, 그 조그마한 세상들에 조금씩 개입해 파멸시키며 멸망속에서 발생하는 혼란스러운 에너지 자체를 먹어치워 자신의 몸집을 불려왔습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세상들은 그의 거대한 힘에 비해서 더 이상 어떠한 의미를 줄 정도의 양이 되지 않았고, 거기서 나오는 조금의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점점 그에게 기별도 가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혼돈은 더 이상 자신의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더 맛있고 큰 혼란을 원했죠. 지금까지는 조금의 노력으로 조금의 혼란을 먹어왔지만, 이번에는 좀 더 많고 강대한 힘을 사용해 만찬을 준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동안 먹었던 혼란 중 가장 끔찍한 혼란을 세상에 일으키고, 그 세상에서 나오는 무한한 혼란을 먹어치움으로써 자신의 배고픔을 달래고자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대부분의 힘을 사용해 한 세상을 만들었습니다. "선"과 "악"이라는 두 세력을 만들고, 그들이 끊임없이 영원한 전쟁을 하도록, 언제나 서로가 미친듯이 미워하게 만들었습니다. 두 존재들의 머릿속에선 상대방을 죽이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습니다. 결국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는 도저히 견딜 수 없었죠. 그들은 혼돈의 생각대로 계속해서 싸웠고 전란속에서 끊임없이 쏟아지는 혼란은 혼돈의 아득한 뱃속을 계속해서 배불리 채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전쟁이 으레 그렇듯, 분명 언젠가는 더 많이 소모된 한쪽의 패배로 끝이 날 것입니다. 전쟁의 끝은 곧 혼란의 종식을 의미했고, 혼돈은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가지 꾀를 냈습니다. 천사와 악마 양측의 전쟁은 현재 자신을 주선과 죄악이라고 칭하는 존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과 절망, 가장 강한 양측 리더들의 통제 아래 전쟁은 아슬아슬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었죠. 양측의 지휘관들은 같은 지휘관급의 무력이 아니라면 상대가 몇명이든 의미가 없을 정도로 강했기 때문에 그들이 죽지 않는다면 다른 하위격 존재들의 죽음은 전쟁의 양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주선과 죄악의 존재가 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때문에 그들중 한명이라도 죽기 시작한다면, 균형의 추는 크게 무너질 것이고 한 쪽의 승리로 끝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그들만 죽지 않는다면, 균형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이었죠. 혼돈은 기왕 이렇게 된거 자신의 힘을 더 사용해 그들을 불멸로 만들었습니다. 이후 그들은 죽더라도 자신의 본거지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원히 말이죠.

제일 먼저 전장에서 죽은 건 누구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만, 그들 중 누군가가 처음 죽었다 다시 전장에 나타났을 때,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들이 불멸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쟁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그들에게는 크나큰 불행으로 작용했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정신을 갇아 먹었고,

불멸한다는 것은 전쟁을 의미없는 것으로 만들 뿐이었습니다. 이 의미 없는 전쟁으로 서로의 정신이 마모될 때 즈음, 선과 악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누군가들은 이 전쟁의 의미와 자신들의 탄생의의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측의 천재들은 연구를 계속하던 중 그 이유가 자신을 만든 어떤 존재에서 비롯된 것을 알게 되었죠. 이 거대한 사실을 깨달은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이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나는 자신을 만든 창조주에게 더이상 도움이 되게 하고 싶지 않았죠. 하루 빨리 이 전쟁을 종결시켜야 했습니다. 양측의 우수한 인재들은 양측 수장들의 동의 하에 비밀리에 만남을 가져 토론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지혜가) 묘안을 냈습니다. '주선이 주선만을 죽일 수 있고, 최악이 최악만을 죽일 수 있는 사실이 피에서 비롯되었다면, 두 피를 모두 가진 존재는 둘 다 죽일 수 있지 않을까?'

두 세력의 가장 뛰어난 천재들은 연구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서로를 증오하던 사실을 잠시나마 잊고 서로의 지식을 맞댔습니다.

그렇게 마침내 두 세력의 공조로 두 피가 섞인 무엇인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인간이었죠. 그들은 인간에게 기본적인 지식과 상대 존재를 죽일 수 있는 무기로서의 전투력과 사고방식을 가르쳤습니다.

실험은 성공적이었고, 이젠 인간의 손에 있는 자그마한 단검이더라도 그들은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문제가 남아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은 완전한 무지 그 자체여서 선과 악의 개념 자체를 몰라 선과 악중 어느 세력이 소유할지 정할 수 없었습니다. 애초에 서로를 죽일 수 있는 단 한개의 귀한 무기이니 서로 양보할 생각도 없었죠.

결국 그들은 내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미궁에 몰아넣고 선과 악의 개념을 깨우칠 수 있게 돕기로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의 체벌이나 유혹은 서로 터치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것도 전술의 일부이니깐요. 그들은 서로의 합의 끝에 다시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인간을 어떻게 회유해야 할지 다시 상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뒤 마침내 인간이 미궁에 떨어졌습니다. 14명의 가장 위대한 존재들은 각자 자신의 방,굴,연구소 등등의 근거지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힘을 사용해 대기하고 있는 장소들의 입구를 미궁과 이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인간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군요. 누군가는 찾아올 인간을 선도하기 위해, 누군가는 유혹하기 위해, 누군가는 그저 살육을 위해, 각각의 다른 이유로 입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승패는 그들의 손을 떠났습니다. 그저 이 전쟁의 끝에서, 자신들이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주인공 스토리

선과 악 사이의 실험체로써 탄생한 최초의 인간,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였습니다.

탄생하자마자 미궁에 떨어졌으니 혼란스러울 수 밖에도. 그의 창조주라 할 수 있는 이들은 그에게 미궁안에서 맞닥뜨리는 존재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이고, 그는 싸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다행이었던건, 그는 선과 악 두 세력의 최고의 천재들이 만들어낸 완벽한 존재라는 것. 태어나길 건장한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난 그는 기본적인 상황 판단이나 전투능력은 물론이고, 먹거나 자지 않아도 며칠간은 멀쩡히 돌아 다닐 수 있는 초인 그 자체였습니다.

단지 유년기를 거치지 않아 자신만의 가치관이나 자아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목각인형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러나 그는 명석했습니다. 일단 자신이 왜 이 미궁에 들어가서 미지의 존재들과 싸워야 하는지, 자신을 만든 존재들이 왜 자기를 이 곳에 집어넣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었죠.

창조주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미리 넣어두었던 기억에 의하면, 자신은 태어나길 무기로 태어났고, 선과 악 둘 중 하나는 절멸시켜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딱히 창조주의 말이 진리다 라는 생각은 없었지만, 그 뜻을 거부하거나 할 정도로 뚜렷한 자아가 그에겐 없었죠.

그는 생각을 끝마쳤습니다. 좋은 싫든 어차피 자신에게 이 미궁을 지나지 않고 탈출할 방법은 없고, 억지로 자신의 사명을 거부할 이유도 없으니, 미궁을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 원하는 것은 있습니다. 지금의 인간이 으레 그렇듯, 태초의 인간이었던 그는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결정을 하고 싶었습니다. 지금이야 그냥 그들이 원하는대로만 행동한다지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결정으로 행동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자신의 생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애초에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자신이 누군지부터 정해봅시다. 자신을 만든 존재들에게는 각자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그런 것이 있어야겠지요. 순간 미궁 입구 부분에, 자신에게 챙겨가라는 듯 종류별로 도열해 놓은 갖가지 무기들과, 그 앞에 세워진 비석이 보였습니다.

비석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Devil, Angel : Eternal Discord And Balance (천사,악마 : 영원한 불화와 균형) 앞 글자들을 따서 DA:EDAB.

그러나 그는 글을 대문자밖에 읽을 줄 몰랐습니다. 이건... 어떻게 읽는 거지..? 대....데..이...다..브? 이거다, 이게 나를 만든 이들이 만든 나의 이름이구나. 이것이.. 나로구나!

그의 이름은 데이다브. 앞으로 이 미궁을 뚫고 천사와 악마의 영원한 전쟁을 끝낸 뒤, 인간의 시조가 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보스 스토리

지혜의 토토크

지혜의 토토크 위즈덤은 선 진영 사이에서도 특별한 존재로, 지혜와 지적인 능력을 집약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맡은 주선입니다. 그녀는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지혜로 연구에 몰두해 자신만의 독창적인 마법체계를 구축해 낸 대마법사이기도 합니다.

토토크는 언제나 탐구심이 넘쳐났습니다. 좋은 점이기도 하였지만 영원에 가까운 세월동안 자신의 지혜는 그녀의 정신을 혹사시켰습니다. 세상의 진리에 가장 가까이 닿아있는 그녀였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실은 토토크에게 있어 더 이상 자신이 흥미로워 할 만한 생각거리가 없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알고있는 자이기에 그녀에겐 궁금한 것도, 더 이상 알아야할 것도 없었죠. 그러나 끊임없는 탐구심은 언제나 자신이 편안히 쉴 수없도록 그녀를 갇아 먹었고, 그녀에게 편안한 휴식은 평생의 세월동안 없었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새로운 지식에 목말라 있는 자신의 지혜가 정체되어 있는 자신을 잡아먹을 것만 같았거든요.

토토크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원했고 이 전쟁에 가장 큰 문제가 아무리 서로를 죽여대도 다시 자신들을 살려내는 어떤 "법칙"에 의한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을 만들어 낸 누군가의 그 법칙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저 끝없는 전쟁만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토토크는 자신이 제일 혐오하는 존재이지만 그나마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발전을 이루어낸 오만의 니가몬테와 뜻이 맞았습니다.

둘은 함께 연구에 돌입했고,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두 천재가 붙은 연구는 당연히 성공하여 새로운 존재인 인간을 탄생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토토크는 최초의 인간에게 자신의 지혜를 전수했고, 그가 자신의 기나긴 전쟁을 끝내줄 존재라 믿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의 선택을 기다리며 자신의 도서관에 틀어박혀 자신의 도서관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나 선 진영의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했던 그녀에게는 새로운 경험입니다. 자신의 평생동안 가장 죽음이 가까워진 순간이지만 그녀는 어느때보다도 흥분되었습니다. 처음 태어나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하나 정의할 때처럼

말이죠. 자신을 끊임없이 괴롭히던 지혜의 종말일 것인가 아니면 자신에게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줄 흥미로운 존재의 도래인가. 이제 그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순수의 재미니

티없이 맑고 깨끗한 영혼. 그러나 오히려 주선들 중 가장 최악에 가까운 존재. 모두 순수의 재미니 퓨어하트를 일컫는 말입니다.

재미니는 태초에 태어나 가장 오랜 기간 살아 있던 존재들 중 하나지만 언제나 천진난만한 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영원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전쟁터에서 웃음을 잃지 않았고 그 미소로 상대를 학살할 때마다, 선 측의 동료들조차 전율을 느꼈습니다.

그는 선 진영에 속하지만 악에 대해 특별한 적의를 느끼지 않습니다. 전장에서 적을 만나면 언제나 활기찬 인사로 시작해 이내 무자비한 공격에 들어갑니다. 오래 이어진 이 행보에 최악들도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재미니의 행위는 그의 독특한 가치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순수함의 상징인 재미니는 악의나 감정 없이 행동하며 전쟁터에서도 그의 사고방식은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는 적을 미워해서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주선들이 그를 칭찬하고 즐거워하기에 그 또한 그러한 행동을 놀이처럼 즐기는 것뿐입니다. 그에게 전쟁은 하나의 '놀이'일 뿐이며, 선 측에 속한 것도 그저 태어났을 때 가까운 곳에 있던 이들이 주선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의 하루스잇타가 재미니에게 자신의 동산에서 태초의 인간을 기다리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재미니는 아무런 불만 없이 그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는 하루스잇타를 누구보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녀가 내린 명령은 곧 자신의 놀이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한 대로 입구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평소처럼 놀이를 이어가려는 마음뿐입니다.

희망의 하루스잇타가 재미니에게 자신의 동산에서 태초의 인간을 기다리고 있으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도 재미니는 아무런 불만이 없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희망이 시킨 일이니까요. 그냥 입구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평소대로 자신의 "놀이"를 이어나가면 될뿐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강한 상대가 나타나는 것이 더 좋을까요. 왜인지 모르게 조금 두근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검손의 케무슨

케무슨 베시덴하이트. 그는 주선측에서도 가장 말끔한 복장을 차려입고 행동거지를 바르게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의 냄새가 가득한 전투와는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남자입니다. 언제나 차고 다니는 양손의 그 큰 건틀렛만 없었다면 말이죠. 언제나 자만하지 않고, 상대방을 도발하는 일이나 깔보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언제나 정정당당.

상대방에겐 예의를 갖추기. 전투의 승패가 보이게 되면 결코 오버하는 일 없이 깔끔한 일처리. 그를 움직이는 행동강령입니다.

재미니처럼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미친듯이 혐오스럽고, 죽이고 싶은건 매한가지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자신에게 사치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케무슨에게 있어 전쟁은 무자비하게 상대를 짓밟고 도륙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극악무도한 자들에게 "검손"과 "존중"을 알려주는 일련의 교육과정일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하루스잇타에게 충성하는 주선들 사이에서도 최고의 예스맨이며, 하루스잇타의 말이면 어디든지 가는 히트맨입니다. 하루스잇타도 케무슨에게 대량학살이나 압도적인 무위를 과시해야하는 다수간의 큰 전투보다는 적은 인원들이 필요한 특수한 임무를 맡기는 편이고, 본인도 그걸 편해합니다. 전투의 광기에 잠깐 사로잡혀야 하는 큰 전투는 자신보다 나은 인재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니까요.

케무슨에게 하나 싫어하는 걸 꼽자고 한다면, 그건 오만의 니가몬테일 것입니다, 검손을 관장하는 주선이다보니, 자신 외에는 모두 벌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니가몬테가 싫을 수 밖에 없죠. 뭐 니가몬테야 모두가 싫어하는 존재이지만 케무슨은 언제나 상대방을 존중하는 만큼, 그 정도가 더 심했습니다. 임무에서 그 저주스러운 염소의 얼굴을 마주친 케무슨이 잠깐 이성을 놓았다가 정신을 차렸을 땐, 그 재수없는 얼굴에 주먹을 한방 꽂고자 날아가는 자신의 모습만이 보였습니다.

어느날 임무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좀 평범합니다. 자신의 거주하고 있는 성당에서,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하라는 내용의 임무였습니다. 케무슨은 떨떠름했지만, 언제나 그랬듯 순종했습니다. 오늘도 연일 대기중이지만, 아직까진 모습이 보이질 않는군요, 무기한 임무이긴 하지만, 아직도 나타나지 않은 상대방의 존재가 영 맘에 들진 않습니다. 조금은 "검손"과 "존중"이 무엇인지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탐욕의 다네크야

채굴자들의 땅, 빛이 닿지 않는 지하세계에는 탐욕과 욕망의 어둠이 깔려 있습니다. 그 어둠의 깊은 곳, 누구도 함부로 닿을 수 없는 곳에선 언제나 고블린들이 내리쳐대는 곡괭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 곳은 탐욕의 화신, 다네크야 호그리드의 광산이자 보물금고, 자신만의 보금자리입니다.

다네크야는 태초의 시대부터 살아온 최악이며 긴 세월동안 대량의 황금과 보물을 먹어치우고 사는 괴물입니다. 그의 상반신은 괴수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먹음직스러운 보물들이 보일때면 침을 질질 흘려대며 짹 벌어지는 하반신 부분의 거대한 아가리는 그가 얼마나 탐욕스러운 존재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탐욕은 귀중한 것들을 먹어치우는 본신의 엄청난 식욕에서 비롯되는데, 먹어도 먹어도 보물을 원하는 그의 식욕은 점점 다네크야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 되어 갔고, 결국 그는 심연의 다른 곳에서 살던 고블린들을 사로잡아 자신의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고블린들에게 가한 살인적인 착취를 통해 마침내 그는 자신의 보물을 축적할 수 있는 수준에까지 도달하는데 성공했고, 오랜 기간 쌓아온 황금의 찬란함은 그의 보금자리를 빛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만 다네크야는 만족을 모르는 괴물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것들의 양이 늘어나고 질이 좋아질수록, 욕망은 더욱 더 커져만 갔고 기존의 것들은 그를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신의 발아래에 둔 고블린들처럼 만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혔습니다. 탐욕이 서린 그의 군단은 전장의 모든 것들을 먹어치우며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전장을 휩쓸고 다니며 식욕을 채워가던 어느 날, 다네크야의 군단엔 소문이 들었습니다. 어느 간 큰 도굴꾼이 다네크야의 숨어들어 그의 모든 보물을 훔쳐가려 하며, 그는 선측의 인물도 악측의 인물도 아닌 듣도보도 못한 새로운 생명체라는 소문이에요. 물론 이는 절망의 너무세용이 퍼뜨린 소문이었지만, 다네크야는 그런 것을 분별할 정도의 지혜로운 존재는 아니었고, 그 날 이후 다시 굴에 틀어 박혀 숨어들었다는 도굴꾼이 자신의 방에 도달하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물을 탐내는 존재들이나, 매일매일의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는 고블린들에겐 언제나 자비가 없습니다. 자신이 평생간 모은(?) 보물을 훔쳐가려는 놈이 있다면 뼈까지 잘근잘근 씹어먹어 줄것입니다. 괴물의 아가리가 다시 탐욕스럽게 벌어졌습니다.

색욕의 세루쿠쉬

세루쿠쉬 리비도라는 색욕을 관장하는 죄악중의 한명이며, 악 진영의 슈퍼스타이자 아이돌, 그리고 소수의 누군가들에게는 여왕님이라고 불리는 인기녀입니다. 그녀의 몸짓이나 행동은 원래부터 미쳐있는 악 진영은 물론이고, 뻔뻔하고 바르게 자란 선 진영의 존재들도 충분히 유혹하고 남는 팜므파탈이죠.

그러나 그녀를 전장에서 만난다면, 썩 좋은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녀와 그녀를 따라다니는 서큐버스들의 군단은 적의 정신을 붕괴시키고 매혹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녀의 이상성욕은 행복한 적들을 거칠게 다루는 데에 있죠. 그녀에게 살해당하고 다시 자신의 진영에서 부활한 선 진영의 병사들의 상태를 보면, 절망의 죄악을 만난 것 처럼 공포의 질려 있는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분노의 모트차마에게 반으로 찢기는 게 더 나은 죽음이라고 말할 정도였죠.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유혹에 성공하는 그녀였지만, 그녀는 유독 재미니만큼은 유혹할 수 없었습니다. 그 꼬마를 만난 전장에서는 단 한번도 승패를 결정짓지 못했습니다. 재미니는 세루쿠쉬의 유혹에 언제나 웃음으로 대처했습니다.

자신의 유혹따위 어림도 없다는 듯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아니, 하루스잇타도 자신의 유혹에 당하면 당분간은 멈춘단 말입니다! 이젠 삶이 언제나 쉬웠던 세루쿠쉬에게 큰 상처였습니다.

처음엔 자신이 마음만 먹는다면 제일 쉽게 넘어올거라 생각했던 꼬마가 자신의 모든 것을 웃어넘기다니, 당황스러웠지만 이는 오히려 세루쿠쉬가 재미니에게 집착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재미니가 나타나는 전장에 언제나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재미니만큼은 유혹할 수없었 절망의 너무세용에게 있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너무세용은 세루쿠쉬가 재미니를 절대 만날 수 없도록 세상의 반대편에 그녀를 배치했고, 결국 꽤 오랜 세월 세루쿠쉬는 재미니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재미니를 눈물로 잊어가던(?) 중, 자신의 부하들에게 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평소엔 더럽게 재수없는 두 연놈이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 내는데 성공했고, 그 존재는 마치 재미니처럼 백지같은 태초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루쿠쉬의 허울 뿐인 심장이 다시 뛰었습니다. 도무지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재미니때처럼 급하게 행동을 해선 될 것도 안된다는 사실을 세루쿠쉬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어차피 곧 자신을 찾아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본인취향에 맞게 꾸민 사랑스러운 자신의 실험실을 오랜만에 깔끔히 정리했습니다. 과도기를 겪고 있던 자신에게 길이 보이는 것 같아 몹시 흥분됩니다. 새로운 만남에 설렘을 느끼다니, 세루쿠쉬 리비도라에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지만... 그녀에겐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군요.

오만의 니가몬테

니가몬테는 태어나기를 세상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군림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몸집을 가지고 태어난 그가 보건데, 모든 숨을 쉬는 것들은 아무도 자신의 위에 위치할 수 없고 그저 니가몬테의 발 아래에서 그의 발바닥이나 훑으며 복종하는 버리지들뿐이었습니다. 사실 그게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애초에 다른 버리지들은 자신과 눈높이도 맞출없는 조그마한 벌레의 크기였고, 여러분들 기준으로 생각을 해봐도 개미와 대화를 하지는 않지 않나요? 인간과 개미의 차이, 신과 고블린의 차이, 전능한 자와 미천한 자의 차이. 이것이 니가몬테가 다른 존재들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평소처럼 큰 몸집을 이끌고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던 그는 금방 세상이 지루해졌습니다. 자신과 같은 높이에서 대화를 나눌 존재가 없었기 때문이었죠. 따분한 나날이 반복되던 중, 어떤 벌레들이 자신에 큰 몸집에 들어받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금방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거기까진 별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먼지가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것에 불과했죠. 니가몬테가 놀란 것은, 자신의 몸에 달라붙은 버리지에게 자신이 증오를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먼지를 바닥에 내팽개쳐버리고 짓밟아 버리고 싶다는 감정이 자꾸만 들었죠. 그는 분노를 느끼고 있었지만, 오히려 이

사실에 굉장한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몸집을 줄여서, 벌레들과 대화를 해보기로요. 그는 그들과 같은 크기로 본인의 육신을 압축했습니다.

작아진 몸으로 본 세계에서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세상은 굉장히 시끄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어지럽고 시끄러운 버러지들이 서로를 계속해서 찢러대고 있었는데, 그에게 버러지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자신이 밑에 두고 다스려야 할 버러지들과, 밟아 짓이겨서 뭉개야 할 버러지들로 말이죠. 니가몬테는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본신의 발굽으로 짓밟고, 주먹으로 내려쳤습니다. 그는 자신이 오만한 만큼, 무서우리만치 강했습니다. 절망의 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학살은 이어졌습니다. 용이 나타났을 때에는, 아무도 전장에 서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존재가 마주친 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시체더미에 파묻혀 있던 악의 잔당 하나가 말하기로는, 엄청나게 큰 굉음이 계속해서 들려왔고, 잠잠해졌을 때 잠시 나와보니 두 존재 모두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이후 니가몬테는 악의 편에 서서 전장에 등장했습니다. 모종의 이유로 절망과 협력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른 죄악들은 조금 드센 버러지(?)라고 생각했으나, 너무세용만큼은 자신과 대화가 가능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자신이 가장 우월하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른 죄악들이 신처럼 절망을 섬기는데 비해, 그는 언제나 허리를 꼴꼴이 세우며 자신이 할말을 했으니깐요. 그러면서도 그가 지시하는대로 행동한 것은, 니가몬테에게 있어 말이 통하는 존재의 출현이 얼마나 흥미로운 일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긴 세월의 전쟁에서 가장 빨리 지치는 것은 역시나 오만한 자였습니다. 흥미가 돌아 전쟁을 이어갔던 것은 과거일뿐었다는 듯이, 그는 금방 버러지들에게 질러버렸습니다. 그는 뛰어난 만큼, 다루기 힘든 존재였습니다. 언제나 엇나가는 아웃사이더, 그러나 신경을 끄고 살 기엔 너무나 강대한 존재, 버러지들은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몇번 버러지들의 공작에 목숨을 잃었던 적도 있습니다. 처음엔 당혹감과 분노로 자신의 성을 스스로 붕괴시켰지만, 계속해서 부활을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전투를 하다가도 귀찮아지면, 상대방의 무기에 목을 들이밀기 일수였죠.

이대론, 의미가 없다. 차라리 죽고 싶다. 마침내 자신이 살아가는 것까지 귀찮아져 버린 니가몬테에게, 자신이 너무나도 혐오하는 깨끗한 버러지가 나타났습니다. 일격에 밟아버리려던 그였지만, 벌레에게서 나온 말은 오랜만에 흥미로운 이야기였습니다. 전쟁의 끝에 당신의 지식이 필요하다. 가장 똑똑하다고 자칭하는 벌레가 자신이 필요하다 하니, 그는 코웃음을 쳤지만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부터는 지식의 토토칸도 니가몬테와 말이 통하는 존재로 신분이 상승했습니다. 버러지에서 나비정도로 변한 것일 뿐이지만요.

연구가 끝난 후 인간을 탄생시키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니가몬테지만, 사실 인간에게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을 죽일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다른 버러지들을 죽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존재들은 모두 자신의 방에 돌아가버렸고,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쓸모없는 버러지들만 전장에 남아 그냥 그도 성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곤 인간을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인간은 버러지긴 해도, 자신이 이쁘장하게 만들어놓은 장난감벌레. 잠깐의 여흥을 즐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렇게, 누가

만들었는데요! 포탈 밖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제야 찾아온 모양이군요. 감히 자신을 기다리게 한 벌레라니, 변변찮은 재주가 없다면, 곤죽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화합의 우리아와 모두엘

우리아와 모두엘은 쌍둥이 남매로, 그들은 하나로 결속된 사상을 가졌습니다. 선과 악의 갈등과 무질서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태어난 그들은 자신들이 신성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모든 존재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나아가야만 세상이 진정한 화합을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의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조화라고 여겨졌습니다.

전쟁 초기, 두 남매는 화가였습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완벽한 조화의 세계를 꿈꾸며 그 이상향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예술적으로 완벽했고, 천사들의 관심을 끌며 그들을 인기스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을 전시해 놓은 미술관에는 천사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고, 그들의 팬을 지향하는 천사들로 하여금 두 남매의 사상을 지지하게 하였습니다. 두 남매는 천사들이 모인 미술관에 종종 나타나 자신들의 꿈의 세상에 대해 연설하였으며, 팬들을 그런 그들을 좋아했습니다. 때문에 지지자들은 날이 갈수록 늘어갔고, 팬덤은 점차 하나의 사상집단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아는 매력적인 카리스마로 군중을 휘어잡으며 선과 악의 양 세력의 분단을 지양하고, 하나의 진리 아래서 살아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따뜻하고 상냥한 말투로 천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극단적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제와 통일의 무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두엘은 지적인 매력으로 사람들을 매료시키며 우리아의 사상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언변이 뛰어나고 이성적인 지혜로써 모든 존재가 하나의 가치 체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모두엘은 누구보다도 우리아와 뜻이 같았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연대는 남매 사이의 깊은 유대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의 강한 신념은 점차 그들을 무자비한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우리아와 모두엘은 불화와 갈등을 조장하는 악마들을 혐오했고, 모두를 위해 하나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유토피아에서 악마란 존재들은 필요없었습니다. 그들의 사상에 따라, 그들은 강압적인 지배를 통해 세상을 완전히 통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에 반하는 존재라면 천사이든 악마이든 간에 상관없이 배제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점차 두 남매와 그들을 따르는 세력은 광적인 무력집단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천사 진영에서 가장 극단적인 행동파 세력을 꼽자면 단연코 그들의 세력이라고 입을 모아 말할 만큼, 그들은 괴물이 되어갔죠.

화합을 소리치는 천사들의 물결은 전장을 덮었습니다. 스스로를 하모니스트라고 부르며 전쟁에 뛰어들 그들은 곧 이 전쟁에서 가장 주목받는 집단이 되어갔습니다. 전장에서 그들을 만난 악마들은 치를 떨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지만

악마보다 잔인했고, 악마보다 더 미쳐 있는 듯 했습니다. 남매와 하모니스트들은 본인들의 유토피아를 위해 멈추지 않았고, 승승장구하며 전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전투할때마다 승리를 거두는 하모니스트였지만, 하루스잇타는 그들이 영 꺾고러웠습니다. 그들의 방식은 지금까지 천사들이 고수해온 방식과는 결이 달랐거든요. 그동안 천사들은 악마들의 비겁하고 영악한 수단을 그대로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자신들의 가치관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모니스트는 승리를 위해선 무엇이든 했고, 테러와 가까운 그들의 임무수행방식은 아군에게 입히는 피해도 상당했습니다. 그래도 전선을 계속 미는데에는 효과가 있었으니 의미가 없는 공격은 아니었다지만, 그들의 방식은 분명 문제였죠.

고민하고 있던 하루스잇타에게, 니가세용이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 시기즈음, 악마들의 세력에서도 큰 골칫덩이가 있었습니다. 질투의 최악인 메우시르타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를 학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마룻 입장에서조차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관계가 맞아 들어갔고, 하루스잇타는 두 남매에게 메우시르타의 집중마크임무를 하달했고, 남매는 자신의 사상에 완전히 반하는 메우시르타를 배제하기 위해 순순히 임무에 따랐습니다. 화합과 질투는 곧이어 마주쳤고, 두 극단주의 세력은 서로를 향해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역사상 가장 크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날의 전투는 승자를 가리지 못한채 서로의 공멸로 이어졌습니다. 물론 두 남매와 까마귀는 살아남아 다시 자신의 세력을 모으게 되었지만, 두 주선과 최악은 그 날이후 자신의 앞을 가로막은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고 상대만을 찾아다니게 되었습니다. 두 수장의 뜻대로 된 셈이죠.

화합의 사상을 전파하던 남매에게 질투의 존재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둘은 상대방의 죽음으로써 자신들의 사상이 승리하길 바랬으나, 상대방을 죽일수가 없기에 완전한 승리따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와 모두엘은 결국 이 전투가 자신들의 손을 떠났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죠. 인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그때였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의 존재는 잠시 꺼두었던 외부상황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메우시르타보다는 빨리 확보해야 했고, 그건 상대방도 알았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화합의 남매는 자신들이 다시 한 존재를 자신과 같은 세상을 바라보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은 자신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분야였죠. 조금의 시간만 지나면, 인간도 자신들과 동화되어 위대한 화합을 위해 일하는 하모니스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감복되지 않은 존재따윈 없습니다. 다 죽었으니까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만, 화합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에게겐 필요없는 방해물일 뿐입니다.

질투의 메우시르타

아주 먼 옛날,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한 마을에서는 날개달린 새들의 형상을 한 천사들이 끼리끼리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새들은 순백이라는 단어를 형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있을 정도로 아름답고 깨끗한 형상을 하고 있었고, 천사들 사이에서도 하얀 깃털이라고 불리며 모두가 우러러 보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또한 그들 역시, 그렇게 불리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듯이, 세상에 선을 베풀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전쟁이 발발했고, 하얀 깃털들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천사들을 위해 전장에 선봉에 섰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했고, 전쟁 초기에 선이 승리하는 전장에서는 항상 그들이 있다고 할 정도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어느 날, 마을 입구어귀에서 부랑아로 보이는 검은 깃털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마을의 주민들은, 이 아이가 내뿜는 불길한 사기를 느끼고 본능적으로 아이가 악마라는 것을 눈치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아이였고, 매우 오랫동안 굶주린 듯 했습니다. 하얀 깃털들은 태어나길 이런 아이를 죽이거나 내칠 정도로 매몰찬 행동을 하는 존재로 태어나길 않았습다. 그들은 엄청난 참을성으로 이 아이에 대한 자신들의 이유없는 분노를 죽였고, 아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검은 새는 사랑으로 길러졌습니다. 메우시르타라는 이름도 가지게 되었고, 어린 하얀깃털들과 부대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번성했고,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쳤습니다. 아이에겐 부족한게 없어 보였지만, 언제나 다른 아이들을 부러워 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신기한 물건을 들고 올때면, 자신도 그것이 가지고 싶다며 물어대는 메우시르타를 보며 마을의 어른들은 "질투쟁이" 라는 별명을 지어주었습니다만, 그저 귀엽게 봐주고 넘어갈만 했기에 딱히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가 커가는 오랜 세월동안, 하얀 깃털 부대는 백색기사단이라고 불리며 전장에서 활약을 이어 갔고 악마들의 비극이 되었습니다. 장성한 메우시르타는 자신을 구해준 기사단을 동경해 기사단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그에겐 전투에 뺄어난 재능이 있었고, 기사단에서도 손꼽히는 무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가지 결점이 있다면, 그는 너무 잔인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적을 죽여댔고, 그의 앞에 선 적들은 처참히 찢겨나갔습니다. 학살을 벌이는 그의 눈에는 광기어린 안광이 뿜어져 나오는 듯했고, 같은 편조차 소름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고가 터졌습니다. 그 날도 백색기사단의 승리로 전투가 끝이 났고, 기사단장은 치열한 전투 끝에 포로가 된 적 악마들의 후송을 믿음직스러운 메우시르타에게 맡겼습니다. 그의 무위는 압도적이었고, 때문에 아주 손쉽게 임무를 완수할 거라 의심치 않았죠. 그러나 다음 날, 기사단장은 피칠갑을 한 메우시르타의 임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후송 도중 메우시르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 포로들은 전부 도살되었고, 그 사실을 메우시르타는 아주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단장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메우시르타를 다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단장은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본능적인 분노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너는 태어나길 검은 깃털로 태어나 천성이 잔인한 것이며, 악마의 피를 이은 존재다운 행동을 했다면 메우시르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곤 꼴도 보기 싫다며 축객령을 내렸습니다. 메우시르타가 쫓겨나듯 나가자, 단장은 곧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습니다. 그의 트라우마를 건드린 것 같은 느낌이었죠. 왜 자신이 이렇게까지 화를 냈는지.. 악마라 하여도 자신들과 함께 천사로 살아 온 사실상 하얀깃털이었는데 말이죠. 단장은 시간이 조금 지나고 진정이 되면 그에게 사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메우시르타는 이미 많이 어긋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과 하얀깃털들은 다른 존재이며, 그 사실은 언제나 메우시르타를 압박해왔습니다. 아무도 몰랐지만, 자신과 다른 그들에게 메우시르타가 느끼는 살인충동은 질로 보든 양으로 보든 제일 심했습니다. 그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이성을 부서지기 직전의 댐처럼 유지하고 있었죠. 터질게 터진 것이었습니다. “질투쟁이” 메우시르타는 더 이상 자신의 질투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메우시르타는 언제나 기사단의 우아한 자태가 부러웠습니다. 그들의 하얀 깃털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의 검은 깃털은 보잘것 없어 보였습니다. 내 것이 아닌 하얀날개를 질투했습니다. 가지고 싶었습니다. 죽여서라도요. 지금까지 계속 참아왔지만, 이성을 놓아버린 메우시르타는. 자신이 참아야 할 이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했고, 마을엔 학살극이 벌어졌습니다. 백색기사단은 매우 강했지만, 질투에 눈이 멀어버린 검은 새는 사신처럼 보일 정도로 이상하리만치 강했습니다. 검은 새가 정신을 차렸을 때에는, 이미 마을엔 하얀깃털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메우시르타는 슬펐습니다. 자신을 키운 마을이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서? 자신은 이들과 다른 검은 깃털로 태어나서? 그런 인간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이 질투할 정도로 뛰어난 이가 마을에 남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더이상 죽일 수 있는 하얀 깃털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질투라는 감정을 느꼈던 처음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전장에서 멋진 모습을 보여주던 그들을 동경한 자신이었지만, 이제는 그들을 자신의 눈에 멋지게 보일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전장을 질투했습니다. 이후 메우시르타는 전쟁터에 나타났습니다. 이제 완전한 악마까마귀의 모습을 한 그는, 전투에 더 많이 참여하기 위해 전장을 지휘하는 절망의 밑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장에 나선 그는 천사든 악마든 모두를 죽였습니다. 태어나기를 다른 존재를 질투하도록 태어난 까마귀에게,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너무세용은 그래도 확실한 무력을 보여주는 그를 용인하고 넘어가려 했으나, 메우시르타는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어느새 메우시르타의 뒤에는 압도적인 자신의 무력에 반한 악마들이 줄을 섰고, 그들 모두 혐오할 대상을 찾을 뿐인 전쟁광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집단이 되어버린 망나니 까마귀를 제어할 수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하루스잇타와 협력해 양측의 골칫거리를 서로 만나게 하였고, 까마귀는 평생 자신이 질투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았습니다. 메우시르타와 그의 집단은 화합과 조화를 강요하는 광신도 집단을 찢어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곤 끝없는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타인에게 향하는 끝나지 않는 질투로 살아가던 까마귀에게 화합의 쌍둥이는 자신들의 지금까지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연놈들이었습니다. 자연히 둘은 상대방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세상이 옳았음을 증명하길 바랬으나, 상대방을 죽일수가 없기에 완전한 승리따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메우시르타는 결국 이 전투가 자신의 손을 떠났음을 인정했습니다. 다른 돌파구가 필요했죠. 인간에 대한 소식을 들은 건 그때였습니다. 상대방을 죽일 수 있는 ‘무기’의 존재는 잠시 꺼두었던 외부상황 에 대한 관심을 다시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무조건 쌍둥이보다는 빨리 확보해야 했고, 그건 상대방도 알았습니다.

메우시르타는 폐허가 되어 버린 자신의 마을에서 동지를 틀었습니다. 그리곤 잠시 고민했습니다. 자신이 죽일수 없는 쌍둥이를 죽일 수 있는 인간에게 자신이 질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가 나타나 쌍둥이를 죽이기 전에 자신이 죽이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곧 의미없는 고민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어차피 그가

우리아와 모두엘을 죽이게 되면 다음 층으로 올라갈 테니 자신을 만날 일은 없고, 자신의 눈앞에 보이게 되면 그냥 죽이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전쟁이 끝나고나면, 아마도 그를 죽일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른 악마들 역시 모두 죽을 것입니다. 전부 죽어야, 잠시라도 이 혐오를 멈추고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내의 잘마쿠논

악마측에게 전쟁에 대해 물어볼 때, 승리에 있어 가장 걸림돌이 되는 포인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더러는 신속깔끔하게 임무를 처리하는 케무슨의 히트맨 부대나, 광기에 사로잡혀 하나처럼 행동하는 하모니스트들을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하나의 결론으로 귀결되죠. 바로 단 한번도 함락된적이 없는 강철의 벽과도 같은 장소, '무한의 요새'입니다. 인내의 주선, 잘마쿠논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이 살아 숨쉬는 거대한 요새는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꾸는 것은 물론 물샐틈없이 단단했습니다. 악마들은 천사들의 요충지인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해 별 수를 다써봤지만, 무한의 요새는 긴 세월동안 단 한번도 적들의 침입을 허용치 않았습니다. 단 한번도요.

잘마쿠논은 어렸을 때부터 어찌보면 우둔하다고도 할 수 있었지만, 강직했습니다. 그가 태어났던 마을의 천사들은 성스러운 군단의 방패였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방패였습니다. 그의 부족은 대대로 단단한 강철을 몸에 두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 강철의 크기나 경도는 능력을 다루는 지체의 신념에 의해 결정됩니다. 또한 그들이 다루는 강철은 그들과 한몸이 되어 충격과 고통을 그대로 고스란히 느끼는 대신, 시전자의 의지와 끈기만 뒷받침된다면 절대로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강한 신념과 끈기의 전사일수록 더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방패가 되는 식이었죠. 잘마쿠논의 부모는 부족장과 그의 아내였고, 역시 부족에서 가장 강한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좋은 부모를 두었던 잘마쿠논은 그들의 철저하고 따뜻한 교육에 의해 강직하고 바른 천사로 자라났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선지 잘마쿠논은 자신만의 방패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마을의 아이들도 조그만한 원모양의 방패정도는 만들줄 아는데, 장성한 청년인 잘마쿠논 만큼은 능력을 사용할 때마다 망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련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니, 그의 부모는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부족한 점을 채근하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아들을 믿고, 언젠가 해낼 거라고 믿을 뿐이었습니다. 아이 역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했고, 가족은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을은 천사군단의 방패라고 불리는 만큼, 악마들에겐 거슬리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고위악마들은 언제나 이 단단한 방패를 눈엣가시처럼 여기고 있었고, 결국 방패부터 부수고 전쟁을 이어나가자는 결론을 냈고, 화력이 가장 잘 나오는 부대를 모아 마을을 집중공격했습니다. 마을의 천사들은

열심히 싸웠으나, 악마들의 집중포화를 전부 다 막아낼 순 없었습니다. 결국 가장 마을에서 가장 강한 잘마쿠논의 부모들이 나섰고, 처음엔 꽤 효과적으로 막아내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적의 대장이 나타나기 전까진 말이죠.

적의 대장은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고, 굉장히 호전적인 모습을 보이는 전투광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천사들 사이에서도 악명을 떨치는 강한 전투력을 가진 악마였습니다. 거대한 도끼를 휘두르는 악마에게 잘마쿠논의 부모는 비등비등하게 맞서 싸웠습니다. 잘마쿠논과 마을의 주민들은 자신들의 부모와 부족장의 승리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나긴 전투 끝에 악마의 도끼가 그들의 방패를 꿰뚫었고, 잘마쿠논의 부모는 아들의 앞에서 무너져내렸습니다. 악마는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전사들이 보는 눈앞에서 적장을 도륙내는 것만큼,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효율적인 건 없으니까요. 그러나 도끼를 내려찍기 직전, 악마는 무엇인가에 들이받혔습니다. 무엇에 얻어맞았는지 이해를 하기도 전에 그는 맞은편에서 똑같은 공격을 당했고, 그는 절명했습니다. 너무도 순식간이었고, 너무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잘마쿠논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그는 사실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도 강대한 힘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연습때는 나오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우둔한 잘마쿠논은 섬세하지 못해 언제나 힘조절을 못할까 두려웠고, 그렇기에 작은 방패를 만드는데 집중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조절을 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잘마쿠논은 곧 강철에 둘러쌓였고, 거대한 몸집이 되었습니다. 이후 육중한 몸을 움직여 악마들을 벌레잡듯이 몽개버리기 시작한 그의 모습은 마치 걸어다니는 성처럼 보였습니다. 악마들 역시 집중 포화를 날려댔지만, 그의 단단하고 굳건한 의지는 흠집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을이 두들겨 맞는 것은 꽤 오랜 기간이었습시다만, 상대방을 쓸어버리는 시간은 1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구해낸 잘마쿠논은, 마을의 영웅이 됨과 동시에 부족장을 이어받았습니다. 이후 전쟁에 참여해 기꺼이 천사군단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그는 기나긴 세월동안 악마들의 공격을 막아내었고, 그의 전장에서 뒤로 돌파하는 악마따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벽같은 그의 능력에도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시전자의 의지와 신념으로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개념의 능력이다 보니, 악마들의 강력한 공격을 받아낼때마다 그의 초인적인 정신력에도 조금씩 생채기가 났고, 점점 그의 정신은 약해져갔습니다. 그의 부족원들과 부모는 몸을 좀 사리라고 말했지만, 적의 공격을 막아내는 법 밖에 모르는 이 미련한 천사는 자신의 너털너털한 정신을 혹사시켜 전쟁에서 앞장섰고, 점점 자아와 이지를 잃어갔습니다. 또 한차례 시대가 달라지는 시간이 지나간 후에, 그가 알고 지내던 마을의 주민들과 부모들은 이미 스러져 사라졌지만, 불사가 되어버린 잘마쿠논만이 시대의 잔재로 살아남았고, 새로운 시대의 주민들을 이끄는 수호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정이 없어진 말 그대로의 걸어다니는 성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도 잘마쿠논은 적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언제나처럼 막아내려 했지만, 웬일인지 적이 요새에 잠입하는데 성공한 모양입니다. 그는 잠시 움찔했지만, 해야 할 일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막아내야지요.

잘마쿠논은 이제 왜 전쟁을 하는지도 잊어버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만 멈춰버려도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감정도 지성도 사라져버린 그였지만,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많다는 사실만큼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이 움직이는 한, 계속해서 자신이 지켜내야 할 것들을 위해 몸을 바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요새에 처음으로 발을 들인 침입자 역시, 많은 악마가 그랬듯, 쓰러질 것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걸어다니는 성이 다시 천사의 갑옷이 되어 몸을 움직였습니다.